



■ 소수의 모험가 - 비범한 인간들의 신화¹⁾

매튜 리스톨(Matthew Restall)

지난 5세기 동안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정복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아메리카의 발견과 정복을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exceptional men)의 업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디드로는 정복자들을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 19세기 역사가 윌리엄 프레스콧(William Prescott)은 멕시코 정복이 ‘소수 모험가에 의해 대제국이 타도된 것’이라고 썼다. 그 이후 이 문구(‘소수 모험가’) 혹은 그와 유사한 문구는 역사서들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하나의 신화, 즉 ‘일반적으로 진실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허구인 어떤 것’일 뿐이다.

아메리카의 발견 혹은 정복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비범한 소수’라는 신화는 세 명의 기념비적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콜럼버스, 에르난 코르테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바로 그들이다.

1) 이 글은 Matthew Restall, *Seven Myths of the Spanish Conques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3)의 제1장을 요약한 것이다.



콜럼버스 (1451~1506)

콜럼버스는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를 ‘발견’해 주었고, 다른 두 사람은 16세기 초에 원정대를 이끌고 가서 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제국을 발견하고 부분적으로 파괴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스페인령 아메리카 제국의 형성은 이 세 사람의 위업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 설명은 그것이 갖고 있는 단순명료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호소력을 잃지 않고 있다. 복잡다단한 과정을 소수의 상징적 인물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함으로써, 과거를 개인화하고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다.

그러나 정복의 문제를 이렇게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넓은 사회 변화 과정의 역할을 간과하게 하며,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과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이다. 또한 당시 일어난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정복의 담론에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시키면 이야기가 훨씬 흥미롭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많은 사람들, 예컨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인들의 존재를 사실상 없애 버리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선 콜럼버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세간에는 역사가 페르난데스-아르메스토가 ‘악명 높은 허위 사실’이라고 불렀던 것, 즉 당시에는 콜럼버스만이 예외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생각이 그 동안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생각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절대적 기여를 한 워싱턴 어빙은 1828년 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애와 항해』라는 책에서 1486년 살라망카 대학에서 콜럼버스와 스페인의 일군의 학자들



마드리드 콜럼버스 광장의 동상.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

간에 벌어진 논쟁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여기에서 살라망카의 학자들은 권위 있는 고전 문헌을 인용하여 지구가 평평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대담무쌍한 몽상가 콜럼버스는 이단으로 단죄될 위험까지 감수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 장면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역사가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완전히 허구라는 점이다. 살라망카 논쟁은 사실 서쪽 바다의 크기에 관한 것이었지 지구가 둥근가 평평한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콜럼버스는 이 논쟁에서 스페인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고전 문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짧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당시 교육 받은 유럽인이라면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믿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망카의 ‘지구가 둥글다/평평하다는 논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지금도 유효한 채로 남아 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예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신화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역사적 과정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젊은 시절의 상당 부분을 보낸 포르투갈에서 보인 행적은 그가 특별히 남다른 계획이나 비전 혹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그는 1480년대와 1490년대에 포르투갈에서 나타난 해상 팽창 과정에 한몫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커넥션의 부재,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의 결여 때문에 그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있던 패배자로서의 모습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에 갔다 돌아오고 나서도 그가 거둔 성공의 정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의심은 당시의 맥락에서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1490년대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해로가 포르투갈인 혹은 카스티야인들이 오랫동안 찾아온 동인도로 가는 해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에게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어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다녀오면서 결국 포르투갈이 아시아로 가는 항로 탐색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콜럼버스와 그를 지원한 카스티야는 마침내 이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콜럼버스의 항해가 분명 세계사의 흐름을 일거에 바꿔 놓는 대사건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예외적이고 비범한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아메리카 발견은 이

미 두 세기 앞서 시작된 포르투갈의 해외 팽창 과정, 한 세기 앞서 시작된 대서양을 차지하기 위한 포르투갈 - 카스티야 간 갈등, 그리고 콜럼버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먼저 발견하기 위한 포르투갈 - 카스티야 간 경쟁의 와중에 우연히 얻어진 지리적 부산물이었을 뿐이다. 설령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10년 내에 다른 여러 항해자 가운데 한 명이 틀림없이 거기에 도달했을 것이다.

콜럼버스는 또한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아니 그 후로도 수십 년 혹은 심지어는 수백 년 동안 세계사적인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으로서보다는, 많은 남유럽인이 거기에 포함되는 해상 팽창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운이 좋은, 그러나 예외적이지는 않은 한 참가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그가 '동인도에 먼저 가기'라는 경주에서 패배자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민족 중심의 카스티야 사회에서 그가 외국인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뱃사람이었다는 주변부적 신분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식민지 건설에 대한 개념에서 카스티야 모델보다는 포르투갈 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스페인의' 정주자와 행정가였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살아 있는 동안 국왕 관리들로부터 홀대를 받았고, 그 후로도 식민지 시대 역사가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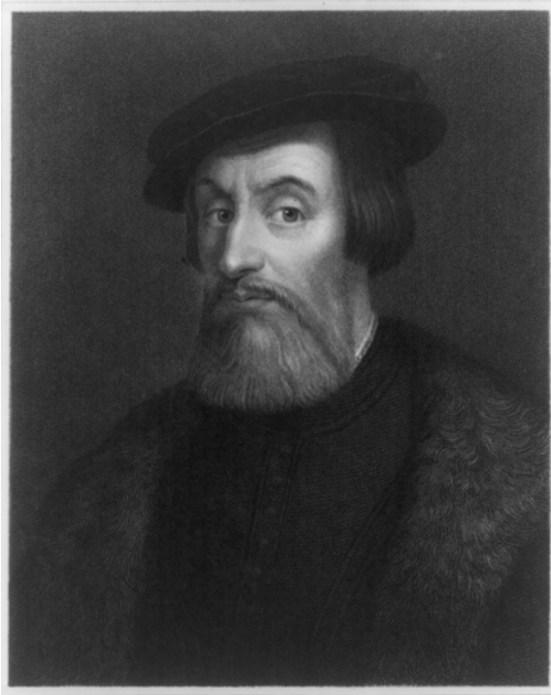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콜럼버스의 첫 번째 아메리카 항해 300주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항해자의 복권과 부활이 이루어진 곳은 스페인이나 라틴아메리카가 아니라 신생국 미국이었다. 19세기 영어권 독자들에게 콜럼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워싱턴 어빙 같은 북미 역사가들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이 항해 400주년이 다가오면서 북미와 유럽에서 힘을 얻어갔으며 그 관심은 1892년 마드리드와,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성대한 400주년 기념식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수백만 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 모든 것이 대서양 양안의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콜럼버스를 깊이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위대하고 비범한 항해자’로 살아 있는 것이다.

콜럼버스가 발견의 아이콘이라면 코르테스는 정복의 아이콘이다. 코르테스가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그 외 정복자들이— 어떻게 역사적 아이콘으로까지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을까? 콩키스타도르(정복자)에 대한 역사적 담론은 사실 이베리아 인들이 신세계에 도착하기 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전한 한 문서 장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장르는 정복자들이 탐험, 정복, 정주 등의 사업을 끝내고 나서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이다.²⁾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정복과 정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새로 획득한 땅에 대하여 왕에게 알리고, 정복자가 공직, 작위, 연금 등의 형태로 왕에게 상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적을 왕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가 갖는 그러한 성격과 목적 때문에 이 문건은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게 하고, 개인의 행동과 업적을 위해 과정과 패턴을 무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복과 관련된 신화의 기원의 대부분을 이 보고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스페인인들을 신의 섭리에 의해 축복을 받은 탁월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 아프리카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동맹자들의 모습을 [정복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정복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복이 대담하고 자기희생적인 몇몇 개인들의 업적으로 간주되는 것 등이 모두 이들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2) 이 장르의 스페인식 이름은 공적 증명서(probanza de mérito)이다.



에르난 코르테스(1485~1547)

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한두 쪽 정도로 소략(疏略)했고 20세기 역사가들에 의해 재발견될 때까지 선반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몇몇 보고서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 혹은 식민지 시대 역사서로 인정받아 널리 읽혔다. 코르테스의 보고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보고서가 연대기(*crónica*)로 발전했고, 그 후 주요 역사서들에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문화가 16세기에 역사적 담론의 지배적 형태가 되

었으며 스페인인들이 정복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전통적 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 표현의 궁극적 목적은 정당화였다. 코르테스의 보고서 혹은 헤레스의 카하마르카 학살 사건에 관한 서술 같은 현장 증인의 서술은 제국의 정당화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개인의 행동과 역할의 정당화를 위한 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 이후의 연대기들의 서술은 이 정당화의 테마를 더욱 발전시켜 정복을 아메리카에 문명과 기독교를 가져다주는 이중적 사명으로 소개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고마라, 안토니오 데 에레라, 그리고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에 의해 씌어진 16세기의 대표적인 역사서들에서 발견과 정복의 성공은 온 세계에 참된 신앙을 전하려는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로 소개되고 있다. 스페인인들은 그 하느님의 계획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중에서도 코르테스 같은 사람은 16세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의 대리인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찬미되었다.

요컨대 수세기 동안 정복 그리고 그에 관련된 토픽에 관한 표준적인 사료는 콜럼버스와 코르테스 자신의 기록,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정복자들의 글, 그리고 그것들에 기반을 두어서 씌어진 식민지 시대 역사서들이었다. 이런 사료들은 스페인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통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텍스트들, 즉 논란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들은 19세기, 즉 식민지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야 출간되었으며, 정복과 관련하여 식민지 시대에 발전한 코르테스와 ‘위대한 인물들’의 신화를 타파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화가 지속한 것은 또한 상당 부분 멕시코와 페루 정복에 관하여 윌리엄 프레스콧이 쓴 역사서들의 대성공에 기인하고 있다. 프레스콧의 책들은 정복자의 보고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복의 신화를 재포장하고, 그것들을 식민지 시대 연대기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우월한 자질을 소유한 ‘소수의’ 유럽인들이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야만인들을 상대로 하여 역경과 불리함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유럽과 미국의 독자들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이데올로기의 19세기 유럽과 북아메리카 판본이라고 하는 이 식단을 기꺼이 즐겼다. 그들에게 프레스콧의 스페인 정복 이야기는 믿을 만하고 위안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복자들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저술가들이나 독자들 모두에게 정복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난 불행한 폭력 혹은 잔인한 행위에 대해 손쉬운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프레스콧의 이들 역사서가 출간된 것이 벌써 한 세기 전 일이지만 그의 책들은 오늘날에도 인쇄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유럽인들의 정복을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 개인화된 업적으로 묘사하는 더 넓은 문화적 관성과 결합되어 널리 확산되었다. 정복에 대한 프레스콧적 관점의 장기지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휴 토머스(Hugh Thomas)의 『정복』(Conquest)이다. 이 책은 1995년 처음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잘 팔리고 있다. 토머스의 책은 프레스콧과 고마라를 거쳐 코르테스 자신과 정복자들의 보고서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그 정복에 관한 관점의 주요 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승리로 귀결되는 명백한 내러티브로서 정복을 조직화하며, 궁극적으로 스페인인들의 문명적 우월성, 코르테스의 찬미, 그리고 소수의 위대하고 예외적인 사람들이 정복을 가능케 했다는 신화의 승인을 입증하는 정복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나 코르테스의 정복은 정복 이전 이베리아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던, 그리고 카리브 제도를 정복하는 과정(1492~1521)에서 공고해진 정복의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그가 추구한 정복 패턴은 일부 소수의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대 대부분의 정복자들이 추구한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정복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정복 원정에 정당성의 위장막을 둘러치는 것³⁾,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디에고 벨라스케스에 대한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보다 높은 수준의 권위체, 즉 왕에게 호소한 것도 그런 상황에 처한 정복자라면 누구나 취했을 대단히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정복 과정에서 원주민 동맹 세력을 획득하려고 한 것, 그

3) 정복 전에 원주민들에게 전쟁포고문(Requerimiento)을 읽어 준다든지, 정복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도시 건설에 곧 바로 착수하는 것이 그 예다

리고 특별한 유형의 원주민 동맹자, 즉 통역(말린체를 비롯한)을 획득하여 이용한 것, 그리고 원주민 지배자를 대담하게 포로로 잡는 행위⁴⁾ 역시 결코 코르테스나 피사로가 구사한 독창적이고 예외적인 전략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이미 잘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을 뿐이다.

코르테스나 피사로 같은 두드러진 정복자들의 정책 결정이나 행동은 독창적이지 않았다. 스페인인들의 정복 과정에서 나타난 통상적 측면들 가운데 많은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서유럽인들이 제국 팽창과 제국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 낸 패턴의 일부였다. 아메리카 본토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중요한 침입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에 카스티야 인들과 그들의 이웃은 남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카리브 해 지역에서 일련의 소유령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복의 관행과 통상적 틀을 발전시켜 왔다. 같은 기간 동안 메시카 족과 잉카 족 역시 광대한 제국을 급속하게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표준적인 절차를 발전시켰다. 정복자들의 전술과 행동은 그런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발견과 정복을 콜럼버스의 독창적인 비전이나 코르테스의 천재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집단의 성취로 파악하는 것은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는 호소력과 흥미가 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훨씬 정당한 방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번역/요약: 김원중]

김원중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시간강사

4) 코르테스가 적지 한 가운데서 몬테수마를 포로로 잡고, 피사로가 카하마르카에서 아타왈파를 인질로 잡은 것이 가장 유명하다
